

대학 수난시대, 새 정부서 바뀔까



한용수의

돌직구

교육부가 최근 '2022학년도 대학 등록금 인상을 산정방법'을 공고했다. 이에 따르면, 올해 대학과 대학원은 최대 1.65%까지 등록금을 인상할 수 있다. 인상률은 전년 1.20%보다 0.45%포인트 높다. 고등교육법에 따라 대학은 직전 3개 연도(2019~2021년) 평균 소비자물가 상승률(1.1%)의 1.5배까지 등록금을 인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 대학들은 올해도 등록금을 동결하거나 인하할 전망이다. 등록금을 인상하면 정부의 국가장학금 II 유형 대상에서 제외되는 패널티를 받기 때문이 다. 국가장학금은 정부가 학생에 직접 주는 I 유형과 이처럼 소속 대학을 통해 지급하는 II 유형으로 나뉜다. 대학이 등록금을 올리면 소속 학생들이 국가장학금을 받지 못하는 구조다. 법적으로 등록금 인상이 가능하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셈이다. 이런 상황은 2009년부터 올해까지 14년째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으로 매년 학령인구가 감소하면서

대학의 숨통을 죄어오고 있다. 대학 신입 학정원은 그대로인데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입학할 학생 자원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다. 사립대학 예산 중 절반을 훌쩍 넘는 금액이 학생들이 내는 등록금에서 나온다고 보면, 대학의 수명이 매년 단축되는 셈이다.

교육부는 학생을 다 뽑지 못하는 대학들에게 정부 재정지원을 끊는 방식으로 대학 구조조정을 시행중이다. 미리 정원을 줄이기로 약속한 대학에는 선별적으로 재정을 지원한다. 교육부가 이렇게 대학의 정원을 감축하는데 쓰는 돈만 올해부터 3년간 1조 1970억원 규모다. 이를 통해 전체 대학의 30%~50%까지 정원 감축을 유도하기로 했다. 상대적으로 학생 모집에 어려움이 적은 수도권 대학들도 예외가 아니다.

학생과 학부모 입장에서 당장 등록금 부담이 감소했다고 해서 무작정 박수를 칠 일은 아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대학생 교육비가 감소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에 따라 우리 고등교육의 질이 낮아질 수 있다. 더 큰 문제는 학교나 학과마다 특색있는 교육을 위한 다양한 시도가 대학 스스로 자기검열을 당하며 통제될 수 있다는 점이다. 학생들을 더 잘 가르치고 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재로 길러내는데 전념하기보다는 예산에 맞춰 아동·바등 대학을 운영하기에 바쁘게 된다.

새 정부가 들어서게 되면 이게 바뀔까. 유력한 두 후보 모두 아직까지 변변한 고등교육 정책을 내지 못하고 있다. 공통적으로 지금의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확대해 대입 공정성을 높이자는 수준의 공약만 눈에 띈다. 이재명 후보는 취업 후 상환 학자금 이용 대상을 확대하고 학자금대출 상환 유예제도를 확대하며, 생활비대출과 한도를 증액하는 등 대출 규모를 키우는 내용의 공약을 냈을 뿐이다. 대학을 졸업하면서 빚을 진채 출발하는 사회초년생들이 더 증가하게 됐다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을까.

정치인들은 입만 열면 미래차나 바이오 등 미래 융합 인재를 몇 명 양성한다느니 하는 그럴듯한 약속을 하곤 하는데, 인재를 양성하는 최고 수준을 교육기관에 대한 지원은 인색하다. 조련사가 원숭이를 다루는 조삼모사와 다를까. 당장 눈에 보이는 표만 의식해서일까. 포퓰리즘은 비단 선거철에만 있지 않고, 우리 교육당국 깊숙히 뿌리박혀 있는 듯 하다.

/세종=정책사회부 차장 hys@metroseoul.co.kr

오늘의 운세

1월 18일 (음 12월 16일)

<http://www.saju4000.com>

36년생 오늘 회의는 내 뜻대로 찬성표가 많을 터. **48년생** 자식결혼을 반대하면 심적으로 어긋난다. **60년생** 잔치에서 음식솜씨를 발휘하여 즐겁다. **72년생** 마음이 옮겨갈 땐 슬퍼하라. **84년생** 미래를 위한 재물을 보는 시각이 달라져야.



37년생 오늘 하늘에서 떨어진 횡재는 나의 것이 아니라 나눠야 한다. **49년생** 어제의 친구가 오늘은 상반되게 배신한다. **61년생** 다정다감(多情多感)도 병이다. **73년생** 이웃사촌이 형제보다 낫다. **85년생** 상대의 단점을 개기 전에 양보를.



38년생 닥쳐온 재난을 미리 경계하자. **50년생** 오로지 참는 것이 오늘의 불운을 이겨내는 것. **62년생** 인생에 휴식이 없이 바쁘게 돌아간다. **74년생** 성공의 기미가 보이니 밀고 나가라. **86년생** 삶의 가치관을 어디에 두느냐가 선순위 같다.



39년생 이제 시작된 노후이니 미래를 재점검하자. **51년생** 건조하여 가려움증이 생기니 마음도 우울. **63년생** 위기를 기회로 삼는 지혜가 필요. **75년생** 천재라도 노력이 있어야 이어진다. **87년생** 요란한 날이니 음주와 먹는 것에 유의하는 날.



40년생 풍요롭기를 원하면 아직 시기가 남아 있다. **52년생** 걱정이 해소되고 마음이 즐겁다. **64년생** 재테크는 계획을 세워 차분히 진행. **76년생** 우물에서 바라본 하늘은 한계가 있다. **88년생** 배려를 하지 않으니 주변의 마음을 얻지 못한다.



41년생 불확실한 미래지만 인생은 살만한 가치가 엄청나다. **53년생** 1의 숫자와 재색이 행운을. **65년생** 미(未)시에 운전유의. **77년생** 일이 성과를 내니 명예가 높아진다. **89년생** 사랑에 색깔이 있다면 나의 칼리는 무엇인지 생각해보도록.



42년생 치아 건강을 점검해보자. **54년생** 여의주가 손에 들어오니 좋은 일. **66년생** 병이 있으나 악도 주어지니 인생사 돌고 도는 것. **78년생** 학문의 길은 다양하나 공든 탑이 무너지지는 않는다. **90년생** 보통은 부자나 행복한 사람은 노력가.



43년생 앞날을 대비하는 준비성을 키우라. **55년생** 가족의 협조로 집안일이 잘 풀린다. **67년생** 삼재이니 재물관련 일은 지장기도를 해보는 것도. **79년생** 태양은 우리 곁에 있다. **91년생** 노력하지 않으면 흘러가는 대로 내버려 두는 것이.



44년생 구슬을 훠듯이 시작하는 시점을 잘 찾자. **56년생** 마음은 불편해도 재물은 들어온다. **68년생** 승진의 기쁨은 공부하며 노력하며 흘린땀의 결과. **80년생** 동료와의 우정이 여리모로 도움. **92년생** 행운을 바라지 않는 사람은 없을 것.



45년생 여자가 낸 망신설에 주의. **57년생** 반려견은 개를 같이하니 때리지 말고 청결하게 키우도록. **69년생** 줄이 길어 기다림이 있어도 포기하지 말라. **81년생** 작은 결함으로 일을 망치니 주의를. **93년생** 물이 깊어야 고기도 모이는 법.



46년생 언덕이 번하여 골짜기가 되듯 변하는 게 인생사. **58년생** 불어오는 바람에 마음이 흔들린다. **70년생** 게으름뱅이가 행복하겠는가. **82년생** 대박나려고 도박에 손대는 사람을 경계. **94년생** 오늘 횡재도 보이지 않던 노력의 결과물일지도.



47년생 견문이 넓고 학식이 풍부해 나이를 잊는다. **59년생** 사람은 죽음을 피할 수 없는 존재. **71년생** 생각지 않은 초대가 있다. **83년생** 공주나 왕자의 사랑을 기대하다 마음만 병든다. **95년생** 지구력이 꾸준하지 않으면 용두사미(龍頭巴尾)다.

은행과 '장사꾼'



기자 수첩

이승용
(파이낸스&마켓부)

장사꾼의 첫 번째 원칙은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것이다. 마진이 남아야 그만큼 수익이 많기 때문이다. 장사꾼의 대부분은 본인의 이익만 챙기고 소비자 사정은 신경 쓰지 않는다. 그렇다면 은행들은 장사꾼일까 아닐까. 결론부터 이야기 하면 장사꾼이다.

은행들의 주된 수익 구조는 ▲투자 ▲대출(여신) ▲예금 ▲적금 등이 있다. 이 가운데 고객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것이 대출과 예·적금이다.

고객은 돈을 불리기 위해 예·적금 상품에 가입을 하고 연 1~2%의 이자를 챙기기 위해 은행에 돈을 넣어둔다. 1년에 1000만

원을 넣어둔다고 가정했을 때 이자는 10만 원이다. 이마저도 세금을 제외하면 1년을 저축한 결과물이 8만원 남짓이다.

반면 대출이자의 경우 연 5~6%이고 금리인상률을 맞아 더 오를 예정이다. 실수요자가 연 5%짜리 신용대출을 1000만원 빌렸을 때는 50만원의 이자를 은행에 지불해야 한다.

그래서 장사꾼이란 소리를 듣는다. 8만 원과 50만원의 갭이 크기 때문이다. 이 상황은 지난해 금융당국의 강도 높은 가계대출을 실시하면서 더 선명해졌다.

은행들은 가계대출 규제 이유로 우대금리를 없애고 대출금리를 올려 금융소비자들로부터 막대한 이익을 얻고 있다. 은행들이 예대마진을 통해 이익을 취하고 있다는 지적도 꾸준히 나왔고 예대금리차 역시 3%포인트에 근접하고 있다.

돈이 필요해 대출을 받으려 하는데 가

계대출 강화로 이전보다 훨씬 많은 이자를 내야 하니 고객 입장에서는 분통이 터질 수밖에 없다.

은행권 수의의 상당 부분은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중소기업들과 서민들로부터 나온다. 은행은 사상 최대 이익으로 직원에게 대규모 성과급을 지급한다. 그래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시중은행들은 기본 300%를 경영성과급으로 지급하거나 할 예정이다. 열심히 일을 했으니 그만한 대가의 성과급을 받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은행들의 잇속만 챙기는 이런 상황은 부정적인 시각으로 비춰질 수밖에 없다. 금융권 최고경영자들이 경영 화두를 내실 경영으로 제시한 상황에서 결과 속이 다른 모습을 모여주고 있다는 따가운 시선이다. 힘든 시기 은행들이 장사꾼의 마음가짐을 조금이라도 내려놓는다면 서민과 자영업자의 숨통은 터 줄 것이다. /lsy2665@

김상회의四季

조상의 메시지



자고나면 길 떠나는 나그네가 그 얼마인가. 삶이 길어야 100년이지만 영혼은 죽어서도 수백 수천년 간다. 살면서 가장 많은 영향을 받는 것은 자신의 전신인 조상영계의 파장이다. 잘살기 위해서는 전생에 조상이 던져 놓았던 듯 하는 그 원인이 있어야 한다. 축적해놓은 공덕도 없이 업장에 의해 조상의 영혼이 구천을 해매고 지옥에 갇혀있으면 그 자손이 잘될 리가 없다. 조상의 영혼이 편한 곳에 있어야 자손이 하는 일이 순조롭게 풀린다. 죽어 저승으로 갔을 때 선행이 많으면 천상세계로 보내주고 악행이 많았다면 그 정도에 따라 지옥세계로 보낸다. 그것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으려하지 않는 사람도 있게 마련이다. 조상이 업장의 대가를 치르는데 그때 스스로는 지옥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

영혼이 고통을 받으면 자손에게 구원을 해달라고 메시지를 보낸다. 메시지를 보내는데 그것이 선행이었다면 산사람에게는 풍요로움이요 악행이었다면 풍파를 보내게 되고 하는 일마다 되는 일이 없다. 이때 살아있는 자손들이 영혼을 구해줘야 하는데 이것은 자손이 미워서가 아니라 조상의 고통을 알아 달라는 의사전달인 것이다. 잘살고 돈이 있을 때는 아예 관심이 없었던 경우의 사람들이 다급한 위기에 처하게 되면 신이나 조상을 찾는다. 이는 보통 사람들 몸에 베인 습성이며 신(神) 조상을 찾는 근원에는 결국 죽음이라는 불안한 현실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겁먹을 필요는 없다. 자신이 살아있을 때 하늘과 땅(부모 조상)에 해야 할 도리를 하고 주변에 선덕을 베푼다면 어느 자손이나 근심걱정 없는 것이다. 받아들이는 사람이 조상을 중히 여기는 소양이 있으면 그 기반위에서 갖는 믿음은 매우 중요하다. 확신이 있다면 두려울 게 없다.

'김상회의 사계'에서는 애독자를 위해 전화·방문상담을 해드립니다.

김상희 역학연구원 02) 533-8877 / www.saju4000.com

매일매일 두뇌트레이닝
스도쿠365

문제풀이방법
4x3 스도쿠는 가로, 세로, 3x3 박스에 1부터 9 ABC의 문자가 겹치지 않게 푸는 퍼즐입니다.

제작: 손호성

사무라이스도쿠

하루에 한 장 기획의 두뇌퍼즐
사무라이스도쿠

손호성 저 | 스도쿠65 | 10,000원

7	8	2	4		8
9					
8	2	1	9	5	
3		4	1		9
1		2	8		
7		5	8	2	1
9	5	8	2	3	7
8					
6	3	9	1	2	4

7	1		3	6
2	5		4	
5	1		9	
7	3		2	1
8	4		2	7
3	4		2	
9			6	